— 발자국은 제가 지워 드리지요...

홍 종호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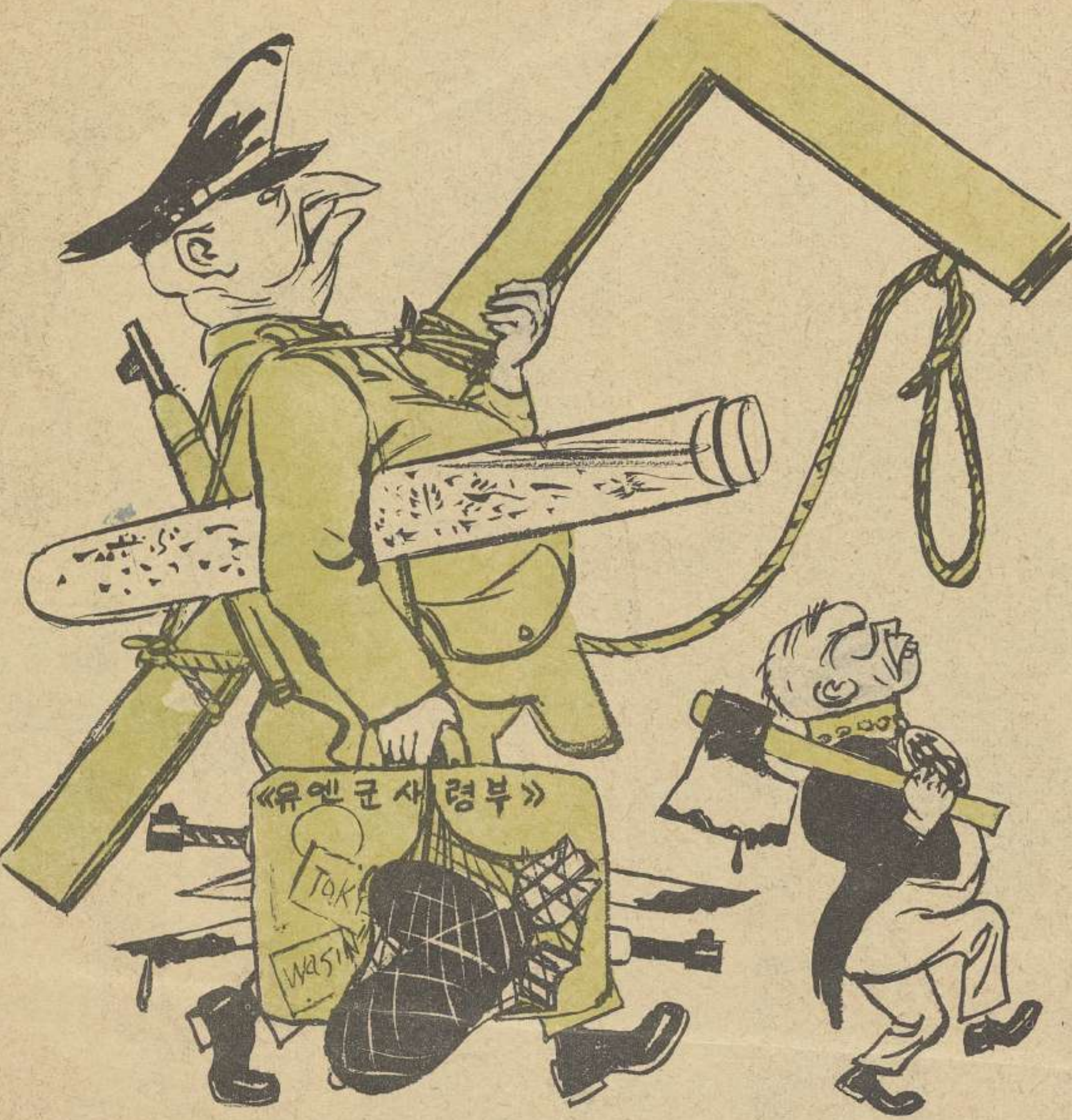
3 -MAY 2 6
Copy ____ 1959

6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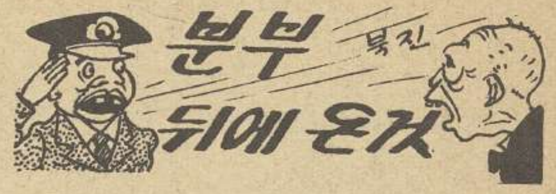
1957년 (79)

활살

강도단 본부 서울로 온다



박 승히 그림



분부 북진 뒤에 온것

박 노을

″북진〃발광증에 미칠대로 미친 리 승만은 또 하나 묘안(?)을 발견 했으니 혼자만 떠버리면 외로워서였던가 아니 제깐엔 ″북진″의 사기를 고취한다는 데서 이리라 하루는 국방부 장관을 불러 드렸다.

리 승만 《들거라. 북진 사기를 고취하기 위한 내 묘안이거던, 응 알겠느냐?》

국방부 장관 《네 어서 분부의 말씀을…》

리 승만 《국군 전체에 말이다. 명령을 줄때나 보고를 할때나 일체 행동 언어에 있어 첫 머리에는 ″북진〃—이렇게 한번 웨치고 용무건 말이건 하게 하란 말이다.》

국방부 장관 《네 지당한 말씀…분부대로 하겠소이다》

분부를 받은 국방부 장관은 그 즉석에서 솔선 시범을 보였으니

국방부 장관 《북진, 돌아가겠읍니다!》

″북진〃이 돌아 갔는지 죽었는지 그것조차 어감에서 감촉할 수 없었던 이 ″북진〃미치광이들의 분부는 그날로부터 국군 전 관하에 시행 되였다.

전화를 건다해도 ″북진, ×××가 말하오〃
″북진, ○○○이 말합니다〃

상관의 호출을 받고도

″북진, ××× 중대장님의 호출로 왔습니다〃

″북진, 드러오게〃

말이야 통하건 말건 ″북진〃이란 말을 이런식으로 국군 내부에 퍼칠대로 퍼치게 하였다.

그러나 ″북진〃의 사기는 고사하고 한개의 관습어로서 된 이 알뜰한 분부는 국군 내부 도처에서 희 비극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훈련장—.

사병들은 고픈 배를 웅켜쥐고 뜀박질에 지칠대로 지쳤다. 몇 시간이 지났으니 훈련도 좀 쉴 수 밖에 없는 일—하여 장교는 휴식의 구령을 내리였고 사병들은 땅에 쓰러지듯 누었다. 때마침 사단장이 지나가자 훈련을 시키던 장교는 후닥닥 이러났다.

장교《북진, 휴식 중입니다》

사단장은 보고를 받고 그도 너그러히 이렇게 말했다

사단장 《북진, 훈련 휴식 좋소!》

저녁 병실—취침 나팔이 분지도 이미 오래였다.

오늘도 훈련이며 숫구이로 몸이 지칠대로 지친 피곤한 사병들은 잠에 들었다. 나이론국이란 이름으로 불리우는 사병들의 식사는 말이 아니다. 하니 잠꼬대에도 먹을 것과 고향 생각 밖에 없는 그들이다 누군가가 잠꼬대를 중얼댄다. —〈언제나 먼하나, 오 어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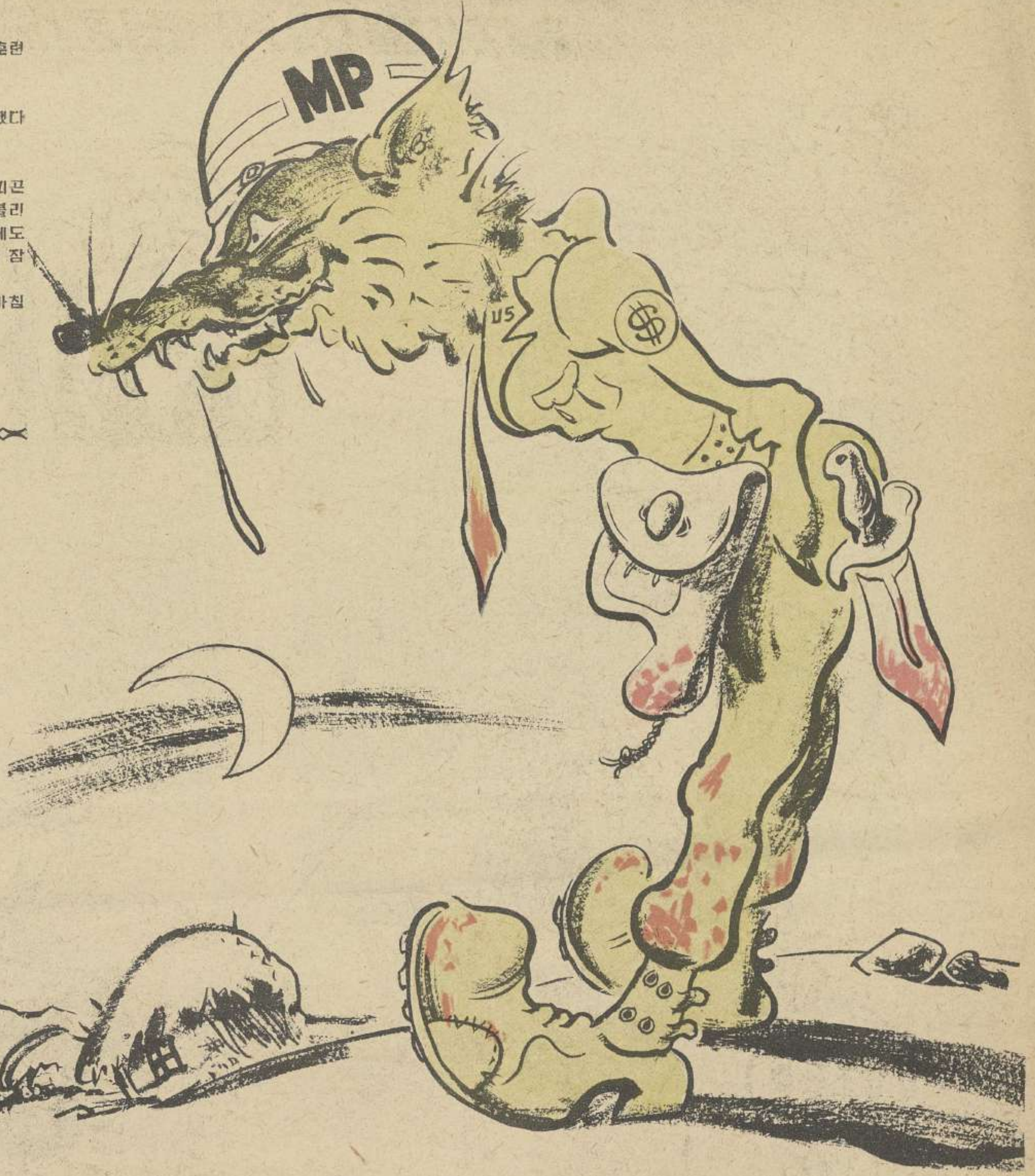
당번을 앞세우고 병실들을 돌던 직일 장교가 때마침 이 병실로 들어왔다.

직일장교 〈흥, 이놈들두 또 잠꼬대군?〉

당번은 깍듯이 보고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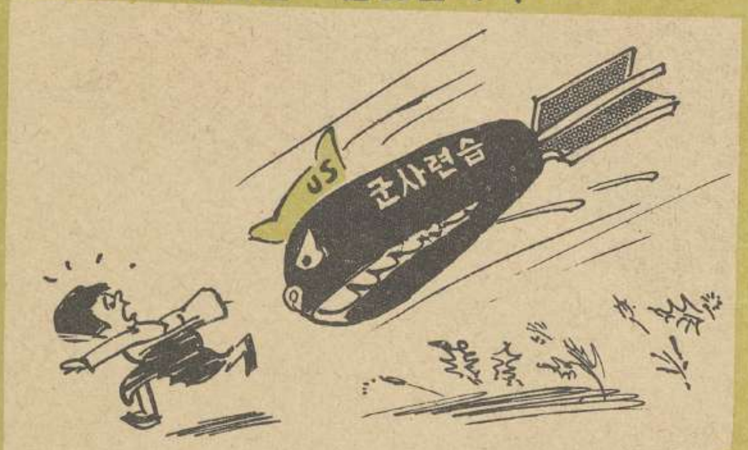
당번 〈북진, 잠꼬대엔 틀림 없습니다〉

피에 굶주린 승냥이 남조선을 활보한다



백 인균 그림

미군이 강점한 남조선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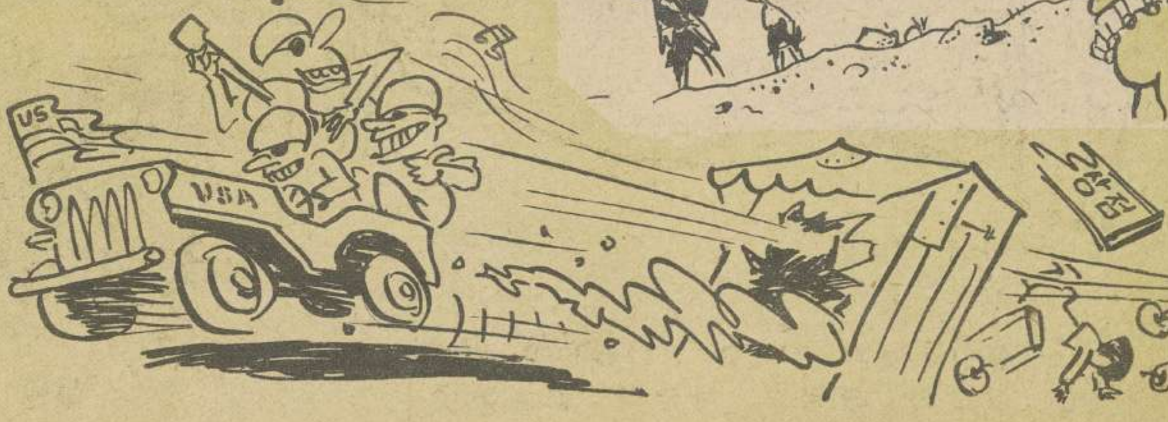
들에서…

"시청" 앞에서……

길' 가에서…

공원에서……

거리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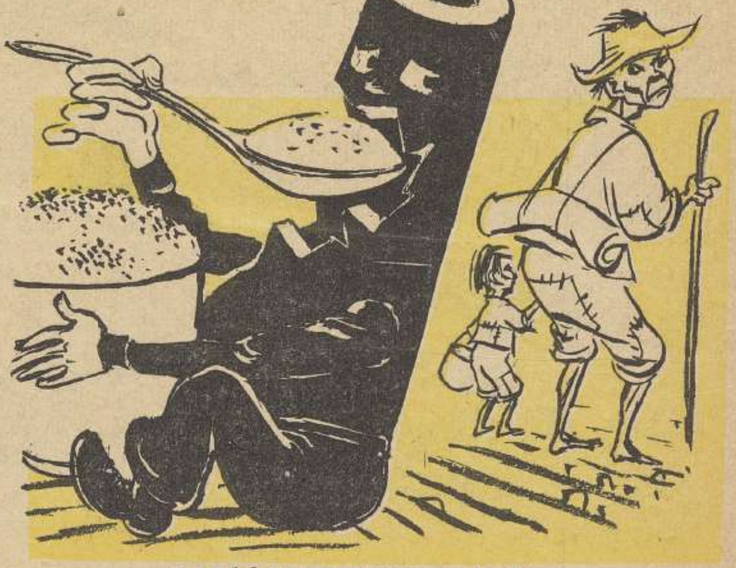
교외에서……

백 인균 그림

구호미 10만 석은 하루 속히 남조선 형제들에게 전달되여야 한다!

—절량민들은 우리를 기다릴텐데 어째서 남조선 당국은 대답이 없을까?

최근의 리승만 표정



남조선에도 쌀은 있다…

절량 농가 실태 조사

박 승히 그림

미제 만행 지상 전람회

미제 살인귀들의 죄행을 잊지 말라!

미군의 재주

조 명식 그림

미군의 례절

최 영근 그림

"베루와 장관"

신 흥 순

지금 남조선에는 수백만의 절량 농민이 풀뿌리와 나무껍질로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견디다 못해 아사자와 자살자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이때 괴뢰 정부의 고위층들은 자기의 배 부른 세상만 여기고 공화국 정부에서 보내 주겠다는 구호미 10만 석도 받을 념을 안하고 있다.

그러면 그네들의 가정은 어떠한가?

여기는 괴뢰 정부 농림부 장관의 집.

식모—아니 베루가 어쩐 일일가? 베루야 베루야 어서 먹어! 아니 이거? 마님! 베루가 전연 밥을 안 먹으니 어쩐 일일가요?

부인—베루가?

식모—아 바둑이는 밥 한 통을 홀칙허더니 다 먹었는데 이 베루는 혀두 안 대질 않아요?

부인—웬 일일가? 어디 보자! 베루야 어디가 아프냐 어디가? 엉? 아니 엊저녁까지도 펄펄허던게 왜 이 모양이야?

식모—탈이 났나봐요.

부인—탈이 나두 이만 저만이 아니로구먼! 엊저녁에 뭘 먹였지?

식모—쇠고기 국물에 팥밥을 말아 줬죠

부인—그럼 팥밥을 먹어 그런가?

식모—원 그 전에도 팥밥은 곧잘 먹었는데요

부인—그럼 어멈이 쉰밥을 준게지?

식모—아뇨.

부인—아니가 뭐야! 쉰밥을 줬게 그렇지 갑자기 이럴 수가 있나 원.

식모—이 개가 쉰밥을 먹기나 헌다구요? 솔솔치두 안 먹는데…그저 흰밥에 고기'덩이만 먹는걸요 뭐.

부인—서양개가 돼서 입두 어찌나 까다러운지 원 어멈! 저 기름갓 좀 갖다 줘 봐! (방안에 대고) 여보 베루가 탈이 난 모양이예요

장관—아마 감기가 들었나보지

부인—글쎄 좀 나와 보세요

장관—보면 아나? 내가 무슨 수의사라구

부인—영 먹지도 않고 짖는 것두 잊어버리구…눈만 껌뻑 껌뻑허구 있는게 이상하지도 않어요?

장관—난 지금 바빠서 그래, 좀 가맛서.

식모—마님! 기름갓을 줘도 눈 하나 거들떠 보질 않는데요 뭐.

부인—저걸 봐! 일은 났구먼! 여보 병원에 전화나 좀 걸어 줘요

장관—여기 웬 가축 병원이 있나?

부인—똑 가축 병원이래야 맛이요? 아무 의사래도 좀 봐 달래구려, 요 아래 가까운 병원에…

장관—당신두 참 답답허구려! 오늘 국회에서 야당의원들이 절량 농가에 대한 문제를 들구 자기편에 유리하도록 읽어 날른지도 모르겠는데 농림부 장관으로서 답변 자료라도 좀 생각해 둬얗게 아냐? 전화 같은 거야 당신은 왜 못걸우?

부인—그래도 당신이 직접 걸어야 재빨리 달려 올게 아뇨

장관—더구나 난 지금 혀'바늘이 잔뜩 돋아나서 말허기두 거북헌데… (전화를 건다) 아 원장 선생이쇼? 나 농림부 장관이오 허허허 근데 지금 우리집 베루가 탈이 났는데 좀 와서 봐 주십쇼! 예 몇'살이냐구요? (부인더러 여보 베루가 몇'살이요)

부인—두살

장관—두 살입니다. 네 곧 좀 (수화기를 놓는다)

△ 잠시 후 의사가 왔다.

부인—아이구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장관—아침부터 안됐습니다.

의사—원 천만에요, 얼마나 걱정되십니까? 자제분이 탈이 나서…

장관—아니오 웬 아들은? 허허허…

의사—그럼 누가…

장관—저기 저 베루란 놈이 탈이 나서요, 어렵지만 좀 봐 주시우.

의사—네에 개가요? 음 그런 걸 쯔! 개야 가축 병원에 말해야죠

장관—사람이나 개나 생리적으로야 비슷헌게 아뇨?

부인—이왕 오신 김에 좀 봐 주세요, 통 짖지도 않고 밥도 안 먹는군요.

의사—음음! 사실 이 개는 댁의 식구와 같이 소중히 여기기 때메 어쩔 수 없이 봐 드리는겝니다.

부인—그럼이요, 우리 식구로 아시구 좀 잘 봐 주셔요.

장관—아닌게 아니라, 이 개는 미국 대사관의 빠카트 농무관께서 기념으로 주신거랍니다, 보통 개라구요?

부인—베루야 베루야 의사 선생님이 오셨다 엉?

의사—체하질 않았을가요?

부인—아마 그런 것두 같애요.

의사—어젠 뭘 멕이셨나요?

부인—어멈 어제 아침엔 뭘 줬지?

식모—흰밥 한 그릇에 이만한 고기'덩이를 줬죠

부인—점심에는?

식모—손님들이 잡숫다 남은 잡채허구 흰밥이요.

부인—저것 봐! 먹던 음식을 주지 말래두 그래! 그러니까 탈이 나지?

식모—그리구 뼉다귀두 주구 애들이 빵'덩어리두 주구요

장관—개는 암만 먹어두 속탈은 안 난다든데.

의사—사람이나 짐승이나 과식을 허면 의례 신진대사가 잘 안되는 법이니깐요 어디 입좀 보자!

부인—자 베루야 입 벌려 엉? 용치 용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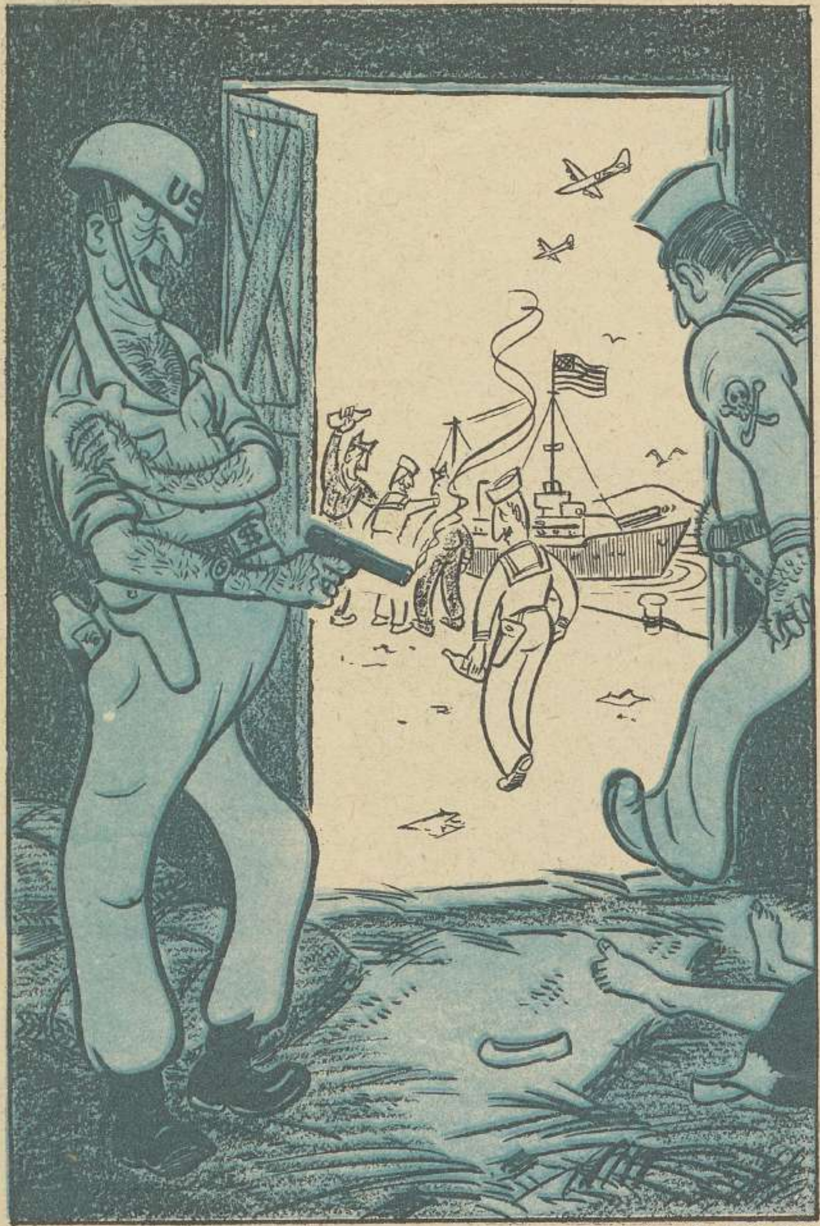
의사—(드려다 보고) 아하 아모 일 없습니다. 혀 바늘이 잔뜩 돋았군요.

부인—혀'바늘이 돋았어요? 여보 베루가 당신처럼 혀'바늘이 돋았구려? 의사 선생님 기왕이면 약은 두 사람분을 주세요 우리 쥔 허구 노놔 쓰게…

× × ×

수백만 절량 농민들이 초근목피로 목숨을 이어가다가 급내 견디지 못하고 쓸어지는 현상이 날마다, 동네마다 벌어지고 있는 이때, 그 책임을 져야 할 장본인의 하나인 《농림부 장관》의 집에서는 이처럼 개까지도 밥 고기에 가쳐서 이런 소동을 이르 키고 있다.

미제 살인귀들의 죄행을 용허하지 말라!



미군의 품성　　원 광수 그림

미군의 목표　　리 영춘 그림

미제는 조선에서 즉시 물러 가라!

미군의 훈련　　홍 종호 그림

미군의 질서　　송 용남 그림

장관의 론법

김 광 현

장 경근 《내무부 장관》을 서울의 출판물들은 흔히 《장장관》이라고 략칭해 버린다.

이렇게 장 자가 거듭된다고 키다리로 알아서는 안 된다.

장 경근은 난쟁이로 보임만한 땅딸보이며 그의 아버지는 일제 시대 평안 북도 룡천군에서 축첩(작은 마누라를 많이 가진) 지주로서 유명했을 뿐더러 그 많은 첩의 몸에서 낳은 많은 자식들을 반드시 큰 지주의 얼굴 못 생긴 딸과 결혼시키되 그 부모로부터 땅을 얼마간씩 받아 늘였으니 결국 자식을 팔아 땅을 걸어 들이는 추잡한 늙은이로 더욱 《유명》하였으니 동네 소년들까지 그 늙은이를 증오했다.

그리고 그 늙은이의 망내 아들 장 경근은 그 돈의 힘으로 소위 경성 지방 법원 판사의 벼슬을 하였다.

이렇게 해서 장 경근은 《출세》하기 시작하였으며 친일 관료로서 두각을 나타 내였었다.

일제의 통치 기관을 물려 받은 미제는 일제 세력이 중심으로 되여 있는 군대를 통솔하는 데 장 경근을 리용하여 《국방부 차관》을 시켰으며 《자유당》 간부로 등용했으며 지난번엔 일제 시대에 신의주 경찰서 경부 노릇을 하던 리 익흥의 뒤를 이어 《내무부 장관》노릇을 시켰다.

《장관》의 벼슬 감투를 쓰게 되니 키가 약간 커진 것 같아서 으스대는 장 경근에게 신문 기자들은 물었다.

《매일 같이 뻐스가 뒤집혀 사람을 상하게 하는 교통 사고를 방지할 대책은 없습니까?》

《그건 뻐스 값을 인상하면 될 것이요》라고 장 경근은 대답하였다.

뻐스 값을 올리면 뻐스를 타는 사람이 적어질 것이며 따라서 교통 사고도 적어진다는 것이다.

이 놀라운 《정치적 경륜》으로 하여 서울 시민들은 뻐스를 못 타고 걸어 다녀야 할 신세로 되였다.

장 경근의 놀라운 《정치적 경륜》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진보당》 경기도 및 서울시 지부 결성 대회에 《자유당》 계렬의 테로단이 침입했을 때엔 테로단을 체포할 대신 《진보당》 측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 즉 그런 집회가 없으면 그런 테로단도 침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의 론법대로 말한다면 도적 당할만 한 물건을 다 없에 버리면 도적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 파주 사건이 일어 났을 때 소위 화이트 미군 대장과 회담하고 다시는 그런 불상사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파주 지구에서만도 600명의 인민을 추방했다고 성명했다.

즉 인민이 없으면 인민을 살륙하지도 않는다는 론법이니 과연 미제 날강도의 조종을 받는 《대한 민국》의 《내무부 장관》 다운 수작이라고 남반부 인민들은 격분하고 있다.

타성에 관한 또 하나의 문제

희랍 녀신 포루뚠의 소행은 예측하기 곤난하다. 이 옛날 녀신의 변덕스러운 성품을 닮은 미국 장관 알프레드 후른쩨루는 나또 총사령관의 자리로부터 점잖은 적십자사 위원장의 직위로 전임했다. 그리하여 38년간의 군대 복무는 헛되히 되지는 않았다. 또 하나의 십자 훈장을 받은 셈이다.

후른쩨루는 나또에서 복무하는 동안 전략과 전술 분야에서는 큰 성과를 이룩하지 못하였다. 사실 장관은 다른 면에서 즉 연설을 하는 면에서 지내 성과를 올렸다. 그는 런던에서 파리에서 로—마에서 안까라등에서 연설했다. 또 누가 알랴 어떤 도시들에서 떠버렸는지. 출판 일'군 대회에서나 아침 저녁 연회 석상에서나 정신 없이 길다란 연설을 하였다. 주로 호전적인 연설이였다. 잦은 방법으로 원자 무기를 찬양하였으며 서부 독일의 무장을 강요하였다. 물론 쏘련을 위협하였다.

지금 후른쩨루는 새로운 직위로 옮겨 갔다. 적십자사 —이것은 나또 본부가 아니다. 여기서의 연설은 인자한 것이여야 한다. 그러나 경험 없이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몇해를 두고 단 한가지의 말 즉 폭탄, 군사 기지, 전쟁! 이렇게 떠버려 왔었지만 지금은 갑자기 자비심에 대하여 말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습관이 된 연설가적 정열은 퇴직한 총사령관에게 안정을 주지 않았다.

열바간의 내부적 투쟁후에 후른쩨루는 결단성을 냈다. 그리하여 최근에 적십자사 일 군들의 집회에서 그는 다시 웅변가다운 화려한 연설을 늘어 놓았다. 잠잠한 청중들은 엄숙하게 둘러 보고나서 그는 말을 시작했다.

—자유 세계는 쏘련이란 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 대하여 용허할 수 없는 적의를 품고 있습니다.

우선 누구든지 연설자에게 반조를 됬어야 했을 것이다. 다행이도 적십자사이니 만큼 어떤 약이든 다 가지고 있을 테니까 연설자에게 왈레리안수 한 목음이든지 진정제든지를 줬어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장관은 템포에 박차를 가하면서 연설을 계속하였다.

—현재 안전 보장 문제는 동맹 체계의 원조로서만 해결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중동이 쏘련의 손아귀에 드는 날에는 서구라파가 무사하리라고는 대단히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물론 중동의 석유 없이는 싸울 수가 없을 터이니…

이러한 식으로 말을 계속하였다.

지금 미국 적십자사 일'군들에게는 무엇을 할 것인가 똑똑히 알 것이다. 장관은 구체적인 지시들을 내렸다.

만일 앞으로도 더 이렇게 일이 진행된다면 알프레드 후른쩨루가 미국 적십자사 일'군들에게 적십자군의 권한을 줄는지도 모르겠다.

끄로꼬질 7호에서

그들은 대단히 비슷한데……

16세난 죠루즈 메쩨츠키는 시계 폭탄을 잘 만든다. 뉴—욕 경찰의 바로 코 밑에 있는 영화관에다도 장치하고 정거장에다도 장치하였으며 어느날은 심지어 시 도서관을 폭파하려고까지 하였다.

드디어 그는 잡히였다. 신문 지상에는 《발광한 테로리스트》의 략력과 사진으로 가득찼다. 재판소의 전등불은 값진 그의 금테 안경 알에 평화로히 반사되고 있다. 범죄자는 보기에 고요한 인품이며 푸른 옷을 입고 있다. 루바—슈까와 넥타이는 나무랄 곳 없고 구두는 반들거린다, 좋은 취미를 가졌다는 것을 증명할 만큼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만일 당신들이 이러한 사람을 거리에서 만난다면, 내기를 합시다. 보통 폭탄이 아니고 원자 폭탄에 관계하고 있는 우리의 국가 활동가들과 그를 구별하지 못할 것이다.

죠루즈 메쩨츠키는 키가 늘신하고 머리칼을 뒤로 올려 재꼈고 수염은 빤빤히 밀고 빰은 붉으스레한데…과연 이것이 원자력 위원회의 위원장 큐이쓰 쓰뜨라우쓰가 아니란 말인가?

보자 메쩨츠키가 자기의 변호사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그는 자존심에 충만하여 자유롭게 말하고 있다. 상원 위원회에서 떠버리는 래드포드 해군 장관과 같지 않단 말인가? 래드포드는 월남 인민을 반대하여 원자 폭탄을 사용할 것을 호소하지 않았던가?

감방에 들어 있는 이 인상적인 《발광한 테로리스트》를 조심히 보라, 아유하는 그의 미소를 자기 실험실에서 수소 폭탄 구조에 대한 최신식 개조를 연구하고 있는 항공상 도날리드 꾸오루쓰와 사실 비슷하지 않단 말인가?

들어 보라, 메쩨츠키가 기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가를, 그는 끝까지 자신성과 태연 자약성을 잃지 않고 있다. 마치도 히로시마를 재'더미로 만들 것을 결정한 자기를 만족스럽게 회상하고 있는 하리 트루맨과 꼭 같다.

기자들은 질문한다: 어째 경찰은 그렇게 오래 동안 메쩨츠키의 씨를 잡지 못했는가고, 그런데 또 하나의 질문을 해야만 한다: 이제 메쩨츠키가 우리 정객들 중에한 목 끼지 못했는가고.

미국 잡지 《메인스트림》에서　　(한 통신 번역)

물 샐틈 없는데서 물이 샜다

유 항 림

경옥이는 남편에 대해서 별로 불만이 없었다. 단지 남편 병호가 너무 무뚝뚝하고, 부부 사이에도 갈피를 두는 것 같은 데가 있어서 그것이 늘 서운했다. 그런 점만 없으면 그 우에 더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해 왔다.

그렇다고 무어 남편이 자기한테 숨기고서 딴짓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자기가 아무리 물어도 대답해 주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 그들의 행복한 생활에서는 하나의 티라고 생각할 뿐이다. 병호는 직무상 남이 모르는 것도 잘 알고 있음직하건만, 그런 일에 대해서는 입이 아주 무겁다. 경옥이가 호기심을 누를 길 없어서 물어보는 말에도

《그런 건 알아서 무엇에 쓰려우?》하고 뚝 잘라서 대답하여, 다시는 이야기를 계속할 맛도 없이 해 놓는 일이 가끔 있다.

그럴 때마다 경옥이는 불만이였다. 단간 방에 새 막고 살랴 하는 말도 있다. 아들 딸 낳고 살면서도 아직 믿지를 못해서 제 비밀과 내 비밀을 따로 따로 간직하자는 건가? 남들이 알아선 안될만 한 일이라면 자기만 알고서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만 않으면 그만 아닌가? ……사실 경옥이는 호기심이 아주 강한 녀자 였다

그러던 중에 드디여 경옥의 호기심을 만족시킬만 한 일이 생겼다. 하루 저녁엔 병호가 자기 직장의 한 친구를 데리고 돌아와서 주석이 벌어졌는데, 술이 얼근해 지자 둘의 이야기는 때때로 국가 기밀에 속하는 새 소식에 언급되였다. 이 두 친구는 술도 얼근히 취했었지만, 장소가 또한 어느 음식점이라든가 하는 곳도 아니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또한 모두 물 샐 틈 없는 사람들 뿐인 만큼 안심하고 지꺼린 것일는지도 모른다. 그건 어쨌든 경옥이는 처음 듣는 새 소식에 귀가 나팔통만 해 져서 들은 건 사실이다.

《오라 그렇댔군 그래! ……》

경옥이는 고개를 주억주억하면서 혼자 감탄하기도 했다. 게다가 이튿날 아침엔 남편이

《어제 저녁에 들은 말은 누구한테도 이야기해선 안돼요. 절대 비밀에 속하는 일이니까……》

하고 다짐까지 두는 것을 듣자

《그런 것 쯤 나두 알아요.》

하고 어엿이 대답해 놓고 보니 어제 들은 소식이 얼마나 중요한 비밀인가를 갑절이나 더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세상 사람이 모두 모르는 중대한 비밀을 자기만은 알고 있다는 생각은 경옥의 호기심을 저윽히 만족시켰다.

사람이란 대개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자기만은 가지고 있을 때 우쭐해 지고 마음이 흡족해 지거 쉬운 것과 마찬가지로 남이 모르는 일을 자기 혼자만이 알거니 생각할 때 우쭐해지고 흡족해 지기 쉬운 일이다. 경옥이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였겠는가는 가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경옥이는 국가 기밀은 엄수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다. 더우기 남편을 사랑하며 남편의 사업을 존중한다. 그는 비밀을 마음 속에 깊이 간직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어렸을적의 친구인 성희가 찾아 와서 이야기 판이 벌어졌었는데 성희의 자랑에 의하면 그의 남편은 경옥의 남편보다도 더 훌륭한 지위에 있는 것 같았다. 자기도 남편 자랑을 하고 싶어졌다.

—그렇지, 중대한 국가 기밀들도 알고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그렇게 눈낮으레 여기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남편의 다짐까지 있었는데, 함부로 말해서 좋을는지 하고 마음의 가책도 없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그것도 상대편 나름 아닌가? 중요한 자리에 있는 간부의 부인인데, 국가 기밀을 함부로 떠버리지는 않겠지, 하고 경옥이는 자신을 안심시켰다. 그러면서 경옥이는 저 자신 간부의 안해로서 남편으로부터 다짐까지 받은 형편인데도 지금 국가 기밀을 루설하려고 한다는데 대해는 생각이 미치지 않았다.

《언니한테니까 말이지만 이건 절대 비밀인데, 아무게두 절대루 말하지 않겠어요? 비밀을 지키시겠다구 약속해야만 말하겠어요.》

하고, 미리 단단한 약속을 받고서야 비로소 목소리를 한층 낮추어 귀'속말로 속사겼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성희는 대번에 눈이 둥굴해져서 침까지 꿀꺽 삼켜 가며 다가 앉았고 다 듣고 나서도 다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하는 것이다.

성희도 결코 입이 가벼운 편은 아니였다.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는 녀자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때때로 아는척 하고 싶어 지는 충동까지를 억누르기에는 참을성이 약간 부족했다. 그래서 어느날 같은 사택 마을에 사는 약간 수다스러운 부인과 이야기 하던 중에 그 부인을 조금 아니꼽게 보기 시작했다. 〈나는 이미 중대한 사실도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뭘 안다고 지꺼리고 있노……〉하는 생각이 들었고 조금 후에는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충동을 금할 수가 없어졌다.

그리하여 약간 수다스러운 이 아낙네도 누구에게나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게 되였다. 그러나 이튿날에는 벌써 약간 수다스러운 이 부인은 시누이를 찾아가서 시누이로 하여금 비밀을 절대로 엄수하겠다는 맹세를 하게 할 기회를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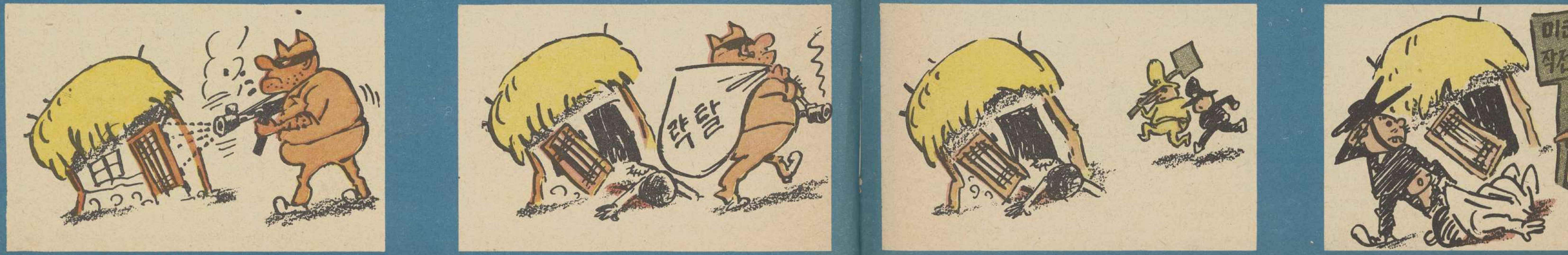
이렇게 하여 취중의 약간한 무경각으로부터 흘러나온 국가 기밀은 한 입 건느고 두 입 건느는 사이에 〈절대 비밀》이란 말은 호기심을 돋우는 자극제가 되였을 뿐, 말하지 않겠다는 맹세나 약속은 차츰 한갖 인사치레 같이 되여 버리고 말았다.

얼마 후에, 간첩 한명이 체포 되였는데 병호네 직장 밖으로는 나가지 안았어야 할 국가 기밀을 이 간첩은 탐지해 가지고 있었다. 조사한 결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성희의 입을 통해서 퍼져 나갔으며 경옥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판명되였다.

미제는 6.25의 교훈을 망각하고전쟁 재 도발에 광분하고 있다

박 승희 그림

미국의 호 친선



《한미 고위층 회담》의 결과 조선 농촌을 습격 략탈하고 사람들을 학살 하는 미제 야수들은 계속 함부로 총질할 수 있으며 그 대신 피해를 입은 조선 사람들은 추방까지 당하게 되였다.

백 인균 그림

반응은 컸다

홍 종호 그림

반영은 뚜렷하다

송 용남 그림

대만에 원자 무기 부미를 주둔시키고 있는 미제와 장 개석 도당의 무모한 시도는 그들 자신의 멸망을 촉진할 뿐이다.

록음실

거짓말 같은 정말

봄이 돌아와 조합마다 퇴비를 내게되자 어느 조합에서나 달구지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였다. 그래서 황해남도 장연군 종합 공장에서는 부득이 돌격 작업으로 달구지를 대량 생산하게 되였다.

×

룡현군 룡정리 도경-협동 조합에서는 기다리고 있던 차라 한꺼번에 9 대를 사왔다. 윤 동무에게도 새 달구지가 차례졌다. 거름을 실기에는 아까운 새 달구지다. 애지 중지 이틀째 끌고나간 윤 동무가 등 새 넘어 골짜기에 다달았을 때 달구지가 휘친 휘친하더니 두 바퀴가 모두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거름을 실은채 달구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

—이게 웬 일일까 새 달구지가?

× ×

이 일이 생긴 날 조합원들은 달구지를 이모 저모를 뜯어 보기 시작했다.

4 각형으로 해서 기본체에 고정되여야 할 심봉은 원형으로 되여 있어 바퀴보다도 더 잘 돌았고 심봉의 안방패는 원심봉에 고정될 대신에 얇은 철판으로 땜을 했으니 방패가 떨어져 바퀴가 놀고 달구지 바퀴 원통은 버드나무로 한 결과 회전할 때에 갈모가 회전되면서 달구지는 의지할 데 없어져서 완전한 파괴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뿐일까 달구지 체는 좌 우편이 맞지 못해서 한쪽으로만 쏠리고——그래도 이 공장에서는 책임량을 다했는걸……

우리 할 일이 아니거든

교통성 건설 관리국 원산 건설 사업소 건설장에서는 달마다 70 여 차량의 골재가 요구된다. 기관차 직장 건설 현장에서는 로동자들이 골재만 더 보장해 준다면 건설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제의하면서 부족되는 골재를 보충하기 위해서 돌과 콩크리트를 까서 쓰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원산 철도 공장 보조 생산부 근처에는 육중한 기계들을 6 개월 동안이나 내버려 둔채 녹이 쓸고 있다.

이 기계들은 하루에 20m³의 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로루구랏샤—와 25m 벨트꼼베야다.

로루구랏샤—는 반년넘어 한자리에서 하품하고 있고 바로 그곳에서 골재 부족으로 로동자들이 아우성친다. 그래도 이곳 지도 일'군들은 시치미를 떼고 《골재를 보장하고 못하는 것은 우리의 할일이 아니거던…그것은 옥평 채석장이나 라흥 채석장이 보장할 임무이기 때문에…》라고……

손 쉽게 있는 예비를 동원 리용하는 것보다 수 백리 떨어진 먼 곳에서 실어다 주는 골재를 더 쉽게 생각하는 모양이다.

어느 바람이 들이불까?

오늘도 룡강군 룡흥리 리 문 협동 조합에서는 40여 명이 동원돼서 주달령으로 올라갔다. 현명하신 위원장 동지의 지시에 의해서 주달령 나무를 베기 시작한지도 벌써 여러 날 째다.

또 개천군 평화리 평화 농업 협동 조합에서도 위원장 동무는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수원지 확장을 위한 저수 지구의 더군다나 귀중한 참나무를 베기 시작한지도 벌써 여러 날 째다.

3 년 동안의 전쟁에서 살인 강도 미제가 각가지 폭탄을 어찌나 퍼부었든지 산에 나무도 많이 없어졌다. 또 전후 건설과 생활 필수품에 목재의 수요가 급속히 늘어간다. 그래서 나무를 기르는 문제가 아주 절박한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런 것은 념두에 없는 위원장 동무들, 될수록 많은 나무를 거더드려야지—— 참나무, 소나무, 큰 나무, 작은나무 되는대로 찍어다 팔아먹는다.

—위원장 동무 산림 경영소와 련락도 없이 찍어서 될까요?

—일 없소! 내 혼자 먹나 조합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러한 배'장은 언제부터 우리 위원장이 부리기 시작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요사이 위원장은 만가지에 조합을 위해서는 일 없어……

팔자 사나운 가로수

요사이 초여름의 평양 거리는 참으로 아름답다. 얼떠서는 고층 건물 사이로 욱어진 가로수——향기로운 꽃 향기——하루 종일을 거닐어도 그것은 즐거운 일, 홍겨운 나머지 버들 가지 꺾어서 피리를 불고 우거진 나무가지 하나 꺾어서 해가림을 했던들 또 이랴 낄 낄 소 볼이 채찍 하나 꺾어 쥐었던들 그리 나무래지 말라고 하신다면……그 나무 하나 하나가 어떻게 정성드려 심어지고 가꾸어지는지를 모르시는 분——뻐스 정류장 옆에 선 나무는 하루에도 수천 수만명에 시달리여 지내고 매달리고 흔들고——지친듯 언제나 시들시들 애들이 꺾는 것을 보구도 본체 만체— 때로는 손수 꺾어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다. 그런가 하면 팔동교에서 보통교에 이르는 거리의 늘신히 자라나는 가로수는 오고 가는 마차'군이 가던길 오던길에 나무 밑까지 꺾어가지고 우차를 몰고간다. 이러한 분네들은 《나》 밖에는 안중에 없는 분……

꼭 필요한 회의

안 태 선

홍남 제약 공장에서는 야간 직공 학교를 만들기로 결정하고 그간 교실 문제며 교원 선정 학생 선발 문제 등도 대개 해결되였다. 인제는 개교식을 할 차례가 되였다.

그런데 개교식을 하기로 결정되였던 4월 15일이 되고 보니, 형세가 조금 이상스러워졌다. 여기서도 회의요 저기서도 회의요, 그래서 개교식에는 꼭 참석해야 할 사람들도 거의가 회의에 들어가 있어서, 개교식에 참석하기는 커녕 얼굴조차 볼 수 없게 되여 버렸다.

그렇다고 개교식을 연기하자니 시급을 요하는 직공 학교를 무작정 연기하는 결과가 되겠고—분주히 지배인 실로 달려갔다. 다른 회의들을 조절해서라도 개교식을 정한 시일에 하자는 생각에서다.

그런데 지배인 실에서도 회의중—그러니 사정 이야기도 할 기회 조차 없다.

이렇게 하여 개교식은 파탄되고 말았는데, 그러면 언제로 연기하겠는가가 또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회의가 없는 날을 골라서 개교식을 하면 좋을텐데, 이 공장에서 회의 없는 날이라곤 없다.

그렇지, 회의 없는 날도 있긴 있다. 휴일에만은 회의가 없다.

그러나 4월 15일인 즉 월요일이였다. 일요일이 되기를 기다리자면 결국 일주일을 연기하는 셈이 되고 만다. 하는 수 없이 이튿 날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튿날도 역시 무슨 회의 그 무슨 회의…… 그래서 학교장과 교원들이 백방으로 뛰여 다녀 보았건만 개교식에는 교장과 교원들 외에는 단 한명의 지도 간부도 참석지 못한 것은 말고라도 정작 빠져서는 안될 학생들까지도 겨우 과반수 출석을 보장한 성과를 축하하면서 개교식이 시작되였다.

개교식은 이미 지난 일이니 여러 말 말기로 하자. 그러나 이렇듯 수다한 회의 속에 파묻혀 있어서야 학생들의 출석을 보장할 수 있겠는지가 문제다. 마야꼬브스끼는 아니지만, 홍남 제약 공장 지도 일'군들에게 한마디 부탁하고 싶다. 그렇게도 많은 회의를 주리기 위한 회의를 열어 달라고.

그 버릇이 떨어질 때까지

신흥동에 사는 홍 수락 동무는 매일 같이 2층 3층으로 웅장하게 늘어선 아빠—트 앞을 지나서 직장으로 가게 된다.

봄철이 되면서부터 아빠—트 마을은 나무를 심는다 꽃밭이다 가꾸더니 요사이는 나무도 우거지고 꽃들도 피여 새로운 거리를 한결 아름답게 한다.

오늘도 담배를 한대 피여 문 그는 기분도 가볍게 매일 가던 그 길로 걸어갔다. 그런데 2층 아빠트 앞을 지날때, 때 마침 이층에서 내동댕이 치는 물을 피해 뒤'거름을 쳤기에 다행이였지 하마트면 물'벼락을 맞을뻔 했다. 흙물이 된 바지를 손수건으로 문대고 시간도 박두한지라 말 없이 가던 길을 가버렸다. 그 때부터 그는 불필요한 신경을 쓰게된 것도 사실이다. 어떤 때는 딴 길로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창마다 흘끔흘끔 쳐다보기도 하면서……

하루는 그가 어제 직장에서 토의하던 문제를 곰곰히 생각하면서 그 거리를 걸어갔다. 그런데 바로 전날 그 창문에서 또 다시 내동댕이치는 물을 이번에는 통바로 뒤집어 쓰고야 말았다. 그대로 직장으로 갈 수도 없게 된 그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다.

때마침 현관에서 나오던 동무가 홍 동무의 이 몰골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층으로 뛰여 올라갔다. 남편의 물벼락에 당황히 창밖을 내다본 아주머니는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는 홍 동무의 뒤'모양을 보았다.

그 순간 저질러 놓은 일이 저보다도 오히려 남편이나 그 동무의 얼굴을 붉히는 일이라 생각할 때 그는 화끈 달아오는 얼굴을 오래 동안 들지 못했다.

한발만 내디디면……

창 진광 그림

"포레스탈"을 만나게 되지

(주)—미 국방 장관이던 《포레스탈》은 전쟁 선동을 하던 나머지 발광하여 8 층 건물에서 떨어져 죽었다

저도 림시야요

학교 선생님은 매개 학생들의 성격 학과 료해 정도, 가정 형편 등 심지어 발'가락 손'가락이 어떻게 생긴 것까지 앎으로써 개별적 학생들에 대한 참다운 지도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졸업 할 때까지 한 선생님이 담임하는 것을 그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학교 경영에 있어서 그 원칙을 떠나는 일이 왕왕 나타나군 한다. 병철이는 시내 모 중학교 인민반 3 학년에서 공부하고 있다. 어느날 학교에서 돌아온 병철이는 문을 열자마자

—엄마 우리 반에 다른 선생님이 오셨서!

—다른 선생님이?

—응 오늘부터 새 선생님이 가르쳐 주었서—

또 가봐야겠구나……

이렇게 대답을 하고나서 병철이 어머니는 좀 당황했다. 병철이가 3 학년에 올라온지 불과 석달이 못돼서 선생님이 바뀌였고 그 후 두달이 못되여 또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다.

병철이 어머니는 담임 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학교로 가군했다. 새로 오신 선생님에게 병철이에 대한 료해를 드림으로써 옳은 지도를 바라는데서이다.

그 때마다 병철이 어머니는 선생님과 긴 이야기를 해야 했다.

그런데 그 후 한달이 겨우 지났는데……웬 일일까?

× ×

다음날 병철이 어머니는 학교로 가서 새로 오신 선생님을 찾아 뵀다.

그런데 그 선생님의 말씀이

저도 림시로 맡았습니다. 한달 후에 새로 선생님이 오시게 되여 있습니다.——

김 상 애

탐조등

△ 푸로병

유선 탄광 2갱 지도 일'군들!

우리 병원에서는 당신들이 지금 위험한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탄광 신문 "고열탄"이 당신들의 병을 제때에 적발하고 처방까지 내렸는데도 당신들은 그 약을 잡수지 않아서 병이 점점 위급해 가고 있다구요? 참 안됐습니다.

증상은 이렇게 나타난다지요?

체탄 푸로수는 잔뜩 올라가는데 석탄에 버럭이 많은 것! 즉 4층탄 버럭 혼합률은 35~40%, 전반적 채탄량에 대한 버럭 혼합률은 평균 17%를 넘는다지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는 급히 문진과 타진, 청진, 그리고 렌트겐 투시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림상적 소견과 렌트겐 소견을 종합해 본 즉 당신들의 병은 프로 병이였습니다. 위험한 병인가구요? 그렇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투시 소견에 의하면 당신들의 머리에 지금 낡은 사상 곰팽이가 잔뜩 꺼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역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몽땅 썩기 전에 빨리 그 곰팽이를 씻어 낼 것을 권고합니다.

△교훈을 모르는 사람들

황해북도 16건설 트레스트 제1사업소 일'군들은 공사의 기간 단축을 위하여 사리원 교원 대학 기숙사 공사를 돌격식으로 진행하여 공사를 빠른 기일 내에 완공했다.

헌데 빨리 완공할 것만 생각하고 날림식으로 공사를 한 결과 준공한 첫날부터 비가 새였다.

그래서 불야불야 지붕과 천정을 뜯고 스레트를 다시 넣는 등 많은 공로력을 들여 보수 공사를 진행했는데 이런 반복 시공에 교훈을 받지 못한 사업소 일'군들은 이번에도 또 천정도 하지 않고 비 맞은 오일대에 미장을 하여 벽과 천정을 며칠 가지 못하게 보수했으니 세번째 보수 공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지않는가?

△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평양 장유 공장 지도 일'군들도 12월 전원회의 결정을 실행하기 위하여 매 사무실엔 물론 창고와 그리고 사람들의 눈 길이 가는 곳마다에 모두 절약에 대한 구호를 붙이고 관리부 일'군들과 전체 종업원들에게도 매번 절약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공장 지도 일'군들은 절약이란 다만 생산에서 랑비하지 않는 것 뿐이고 량곡들을 비에 맞아 썩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절약이 아닌줄로 생각했었는지 공장에서 가장 원자재들이 많은 창고가 1955년부터 비가 샌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 4월 10일에 또 비가 새여 많은 콩, 밀, 대두박 등의 손실을 보고서야 창고를 수리하니 이것이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닌가?

△돌 격

《여보게 돌격 준비를 했는가?》

《돌격 준비는 무슨 돌격 준비》

《아니 래일이 20일이 아닌가》

《그래 20일이지》

《그러니까 래일부터 돌격이란 말이야 말하자면 지금 돌격선에 와 있는 셈이란 말이야》

《응 정말 그렇군!》

이것은 평양 최 원서 지배인이 사업하는 공장 동 병인 동무가 직장장으로 있는 직장 종업원들의 대화다.

이 직장에서는 업무부에서 자재를 월초에 공급하지 않아 5일까지는 완전한 생산을 못하고 부차적인 작업들을 하면서 월말에 가서야 돌격식 작업을 하군 한다.

4월에는 20일에 가서야 돌격 명령이 내리고 계획을 미달할가바 종업원들을 내몰았다.

그리하여 질 나쁜 상품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것을 백여 공수의 로력을 들여 다시 수정을 했다. 그래도 계획은 미달한다. 그리하여

《오작품도 질 낮은 것도 모두 합격품으로 하시오》란 지시가 떨어진다.

월말이다.

《어떻게 됐소?》 직장장이 묻는다.

《아직 하조 작업도 못했습니다》

《수'자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말이요》

《101.4%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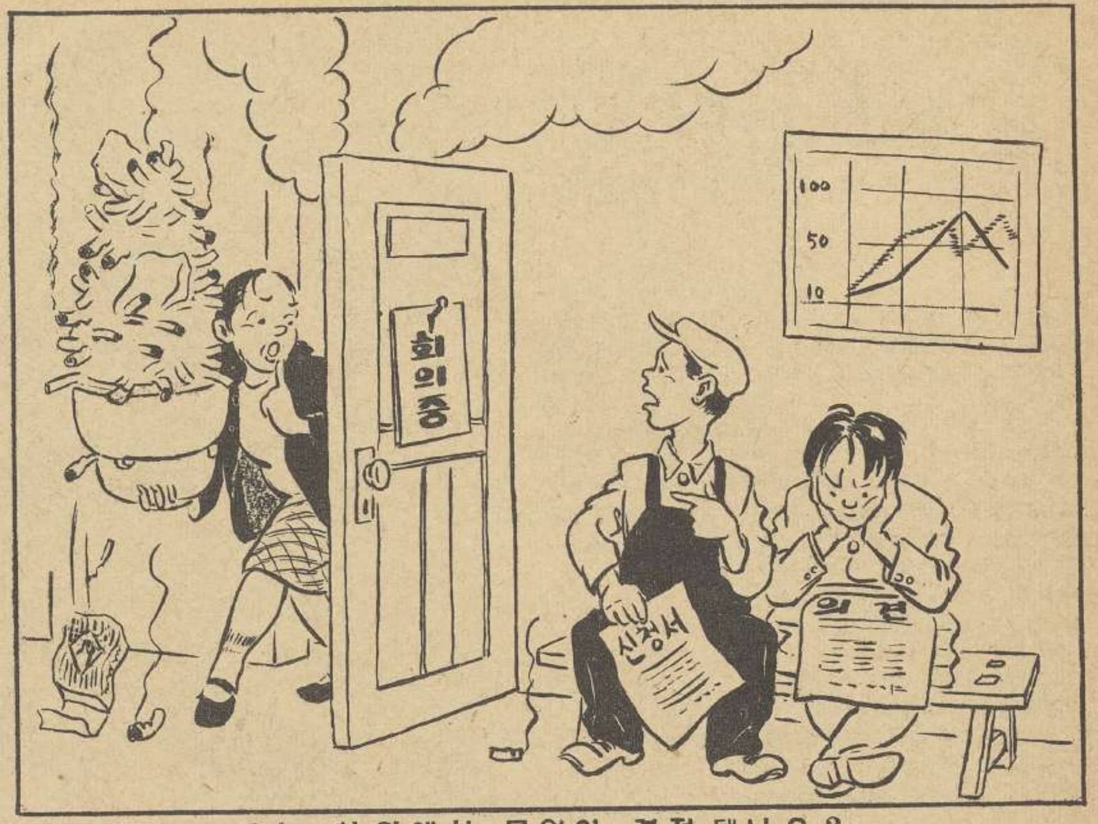
만세!

그리하여 돌격은 만세로 끝났지만 돌격에서 얻은 전과는 오작품, 기계 혹사로 인한 사고 종업원들의 피로 뿐이였다.

리 윤 봉

오늘 회의의 산물

최 영근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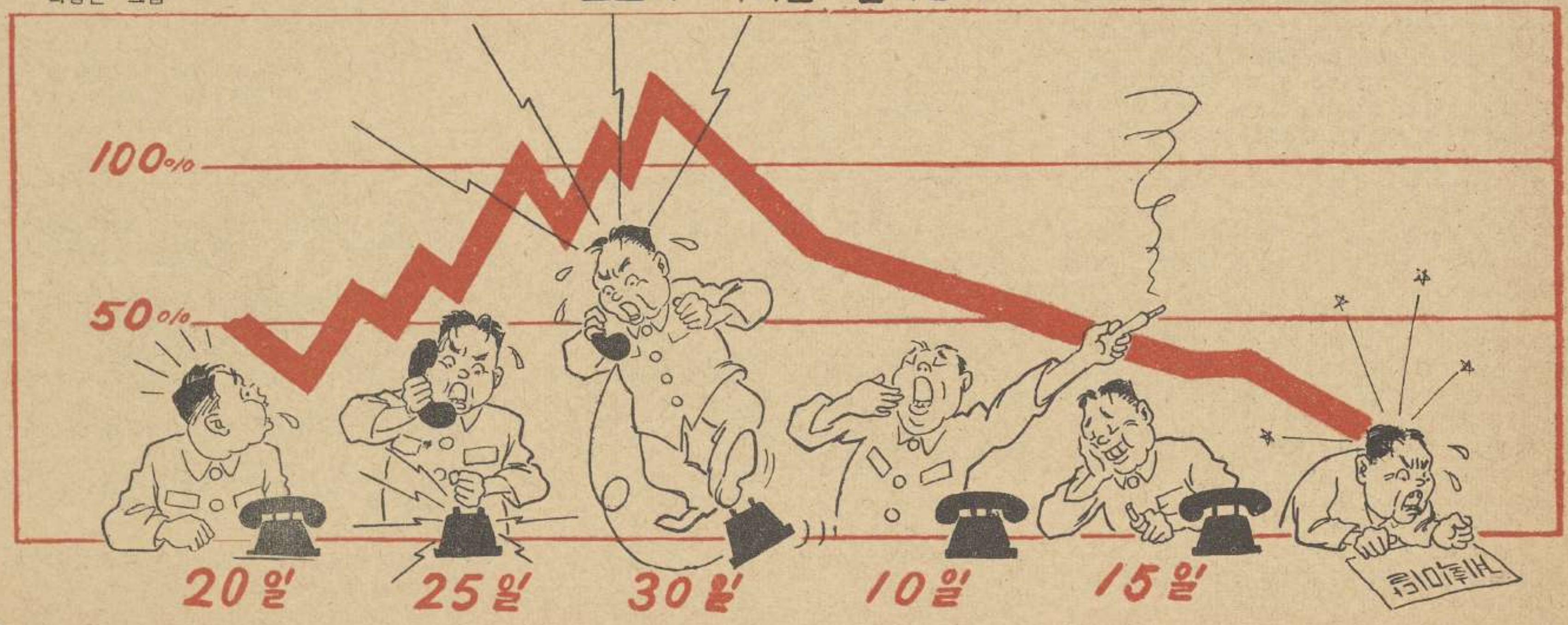
—오늘 회의에서 무엇이 결정 됐나요?

—래일 회의를 계속하기로 결정 됐어요

일부 기업소들에서는 증산을 위한 실제적 대책을 세울 대신 말'공부로만 시간을 랑비하고 있다

도표에 나타난 돌격증세

최영근 그림



미끼

곽 상 기

경수는 가슴이 뜨끔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알고 있을까 하고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지만 곧 외면했다. 그래도 동식이는 한번 징긋이 웃고 나서 말을 계속했다.

《나는 본시 입이 무거운 사람이라, 함부로 떠버리며 다니지는 않을테니 걱정일랑 마시오. 8·15해방 당시 동무는 동생 경선이와는 딴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후 동무의 동생이 남조선으로 가서 괴뢰군 특무 장교가 됐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거요. 그뿐 아니라, 동무는 간부 리력 문건에도 동생에 대해선 한마디도 안했거든요.》

경수는 눈을 감고 다음 말을 기다렸다. 이럴 줄 알았더면 동생의 일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을걸 하고 후회막급이다. 지금껏 숨겨오다가 이제 폭로된다면 그게 무슨 창피가! 곁 눈질로 경수의 표정을 살피고 있던 동식이는 말을 다시 계속했다.

《뭐 그렇게 놀랄 건 없소. 그런 정도의 비밀 한둘쯤 가지고 있는 건 례상사니까요. 사실은 나두 남에게 말하기가 좀 곤난한 일이 하나 있어서…》

이런 말을 듣고 보니 놀란 가슴이 약간 가라앉는 것 같았다. 이 사람도 무언가 비밀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그게 대관절 어떤 것인지 좀 알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다.

《경수 동무두 아다싶이 먼저'달엔 내가 출장을 가지 않았소? 그런데 출장 갔을 때 그만 큰 실수를 한가지 했단말요. 이번에 거기로부터 상세한 보고서가 올라왔다는 데, 그 보고서에 내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반영돼 있는지 그걸 좀 미리 알아야 나두 대책을 미리 세우지 않 소? 그래서 경수 동무한테 부탁인 데, 그 보고서를 남 모르게 좀 보여줄 수 없겠소?》

《보고서는 나두 읽어봤는 데, 동식 동무에 대해선 뭐 한마디두 없던데요.》

《그야 물론 이름까지 박지는 않았겠지만 내가 저지른 실수와 관계되는 것이 꼭 언급돼 있을 거요. 영문을 모르고 보면 알아차리지 못할거요. 그렇다고 이런 말을 아무에게나 함부로할 수도없는 일이고…

경수는 가슴을 어루만지며 슬그머니 한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되면 인젠 안심이라는 생각에서다. 너도 내 약점을 쥐고 있지만 나도 네 약점을 하나 잡았다. 피장파장이 아닌가, 그걸로 엇셈을 하자…

동식이가 말하는 그 보고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이런 문서는 역시 비밀 문건으로 취급하는 규례로는 되여 있었지만, 그 내용을 생각해 볼 때, 거기 뭐 큰 비밀이 담겨 있다고 할만한 것은 별로 없다. 좀 보여 주면 어떨랴! 그러나 경수는 쉽게 응락하지 않았다. 비싸게 굴수록 생색이 나리라고 생각했다.

《동무도 아다싶이 그 보고서는 비밀 문건으로 취급해야 하는 것이 돼서…》

《그러기에 경수 동무한테 특히 부탁하는 것 아니요》

《정 그러시다면 래일에라도 조용한 틈을 타서 나한테 오십쇼. 보여 드리죠.》

《고맙소. 그런데 직장에서는 남 모르게 읽을 수도 없을 것 같구, 또 그렇게 대강 읽어서는 안되겠는 데… 좀 미묘한 일이 돼서…하루'밤만 내게 빌려'주실 수 없겠소?》

《그건 절대로 안되겠는 데요.》

경수는 이렇게 뚝 잡아떼서 거절은 해 놓고도 동식이가 낯빛이 달라지며 뾰르퉁 해서 돌아앉는 것을 보니까 고쳐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졌다. 이 자가 앙심을 품고 동생의 이야기를 퍼뜨려 놓는다면 어떻거랴! 또 보고서라는 것도 내용인 즉 대수로운 것이 없지 않은가! 경수는 동식의 청을 드디어 들어주기로 했다.

그리하여 둘이 사이에는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친분관계가 맺어졌다. 그후 약 한 달이 지난 어느날 저녁에 그들은 술상을 마주하고 앉을 기회가 있었다. 그날 동식이는 경수에게 여러번 거듭 치하를 한 끝에 술이 얼근히 돌자 자기 팔목에 찼던 시계를 풀어 주었다. 경수가 눈이 둥글해지는 것을 보고

《뭐 사양할 건 없어요. 그저 기념으로 드리는 거니까, 따게 생각할 건 없어요.》하고 권하는 것이였다. 경수는 못견디는 척 하고 받아 두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동식이는 다시 경수를 조용한 곳으로 불러냈다. 이날 동식이는 또다시 경수에게 한가지의 청을 내 놓았다. 경수가 소관하고 있는 어느 통계를 하루'밤 동안만 빌려 달라는 것이였다. 이 말에는 경수의 표정이 대번에 변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통계는 중요한 국가 기밀일 뿐만 아니라, 그가 이것을 요구하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통계는 알아서 무엇 하려우? 그건 국가 기밀에 속한다는 걸 모르시오?》

《나두 그런 것 쯤은 알고 있소.》

《그럼 왜 그런걸 요구하오? 그게 참 이상스럽단 말요.》

《왜 이러시오?. 그만하면 다 아실텐 데 뭘 이러시오. 그게 비밀이니까 알고 싶다는 거지. 누구나 다 아는·거라면 뭣하러 탐지해 내려고 애쓰겠소.》

《그럼, 당신은?》

《간첩이란 말이지요? 그래 간첩이라면 어쨌소?》

동식이가 이렇게 뻔뻔스럽게 가면을 벗지고 나섰으나, 경수는 얼굴빛이 붉으락 푸르락 했을 뿐, 자리를 차고 일어설 수가 없었다. 그는 이미 이 악당과는 악연으로 맺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경수를 노려보고 있던 동식이는 말을 계속했다.

《마음을 진정하고 내 말을 들으시오. 당신은 이미 동생에 관해서 중대한 사실을 감춰온 사람이요. 그리고 전번에도 국가 기밀 문건을 내게 빌려 주었소. 나는 그걸 사진 찍어서 남쪽으로 보냈더니, 그 보수가 왔소. 시계말이요. 당신은 보수로 시계까지 받지 않았소? 그래 놓고도 지금 와서 날더러 간첩이라면 당신은 대관절 무어요?》

《아니요, 난 그런 줄은 모르고…》

《알았든 몰랐든 사실이 그렇게 된걸 지금 와서 요동친들 뭘 하오!》

《전엔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됐지만 앞으론 절대로 그런 일은 못하겠어요. 여보쇼, 내 사정을 봐서라도 앞으론 제발 손을 끊어 주시오.》

경수는 애걸복걸하기 시작했다. 전번에 별반 리용 가치가 없는 보고서를 빌려달라고 한 것이나 시계를 준'것이 모두 경수를 간첩 일당에 끌어들이기 위한 연극이며 미끼였다는 것을 모르는 경수는 그저 절망적으로 간청했을 뿐이다. 그러자 이 음흉한 악당은 버럭 고함을 질렀다.

《듣기 싫소! 이제 뭐 애들의 작란인 줄 아오? 이제 와서 손을 끊어 달라가 다 뭐야!》

그래도 경수는 얼마 동안을 더 애걸 복걸 했지만, 끝내 그 악당이 요구하는 통계를 그에게 넘겨 줄 것을 약속하고야 말았고 사흘 후에는 실지로 그것을 그에게 넘겨 주었다.

이렇게 하여 경수는 동식이에게 여러차례 기밀 문건을 넘겨주군 했고, 그 간첩망의 일원이 되고야 말았는데 하루 저녁엔 이 간첩망이 일망타진으로 전부 체포되었다.

체포된 뒤에야 동식이는 아차 하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지금껏은 자기가 교묘한 미끼로 낚구어서 경수를 간첩 일당에 끌어 들였거니 생각해 왔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실은 경수가 던진 미끼에 그들 간첩 일당이 걸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 경위는 이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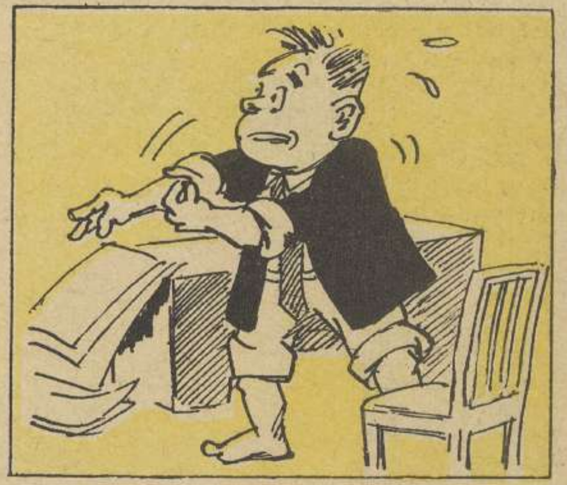
동식으로부터 기밀 통계를 강요당한 날 밤 경 수는 밤을 꼬박 새워가며 생각했다. 조국을 배반하고 간첩이 된다는 것은 행복한 장래도 가족들의 앞날도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자기는 이미 커다란 과오를 저지른 사람이지만 이 우에 더 큰 죄악을 더덮쳐 범하는 편보다는 자기의 과오를 지금 다 털어놓고서 처분을 기다리는 편이 나으리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내무기관에 이 사실을 고백하고 그 련계 밑에 동식이가 요구할 적마다 허위 통계를 넘겨주군 해 왔던 것이다.

이리하여 경수는 과오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용서를 받아 아무 추궁도 받지 않게 되였으며, 그런 위험한 처지에서 조국을 저버리지 않고 간첩일당을 체포케 한 공로에 의하여, 그의 충실성과 혁명성은 찬양을 받았으며, 표창까지 받았다.

자기 자리를 고수했다

—아직 시간이 있다

—에크!! 시기가 왔군



—가만이 있다간 안되겠는 걸

—빨리 모를 내자!!

리 영춘 그림

딱한 어머니

원 광수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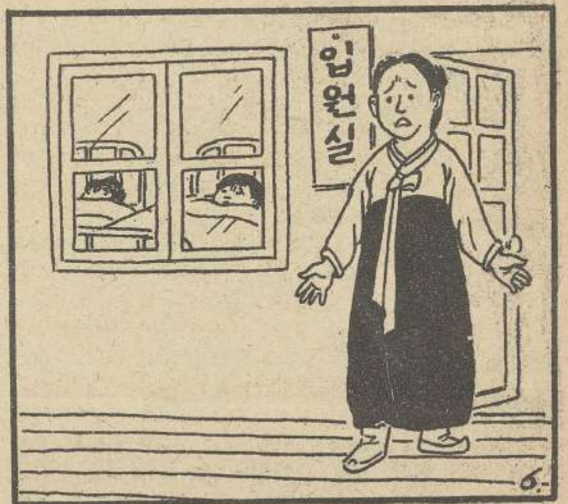
—선생님 진찰 좀 해주세요

—놀기도 잘 했고

—먹기도 잘 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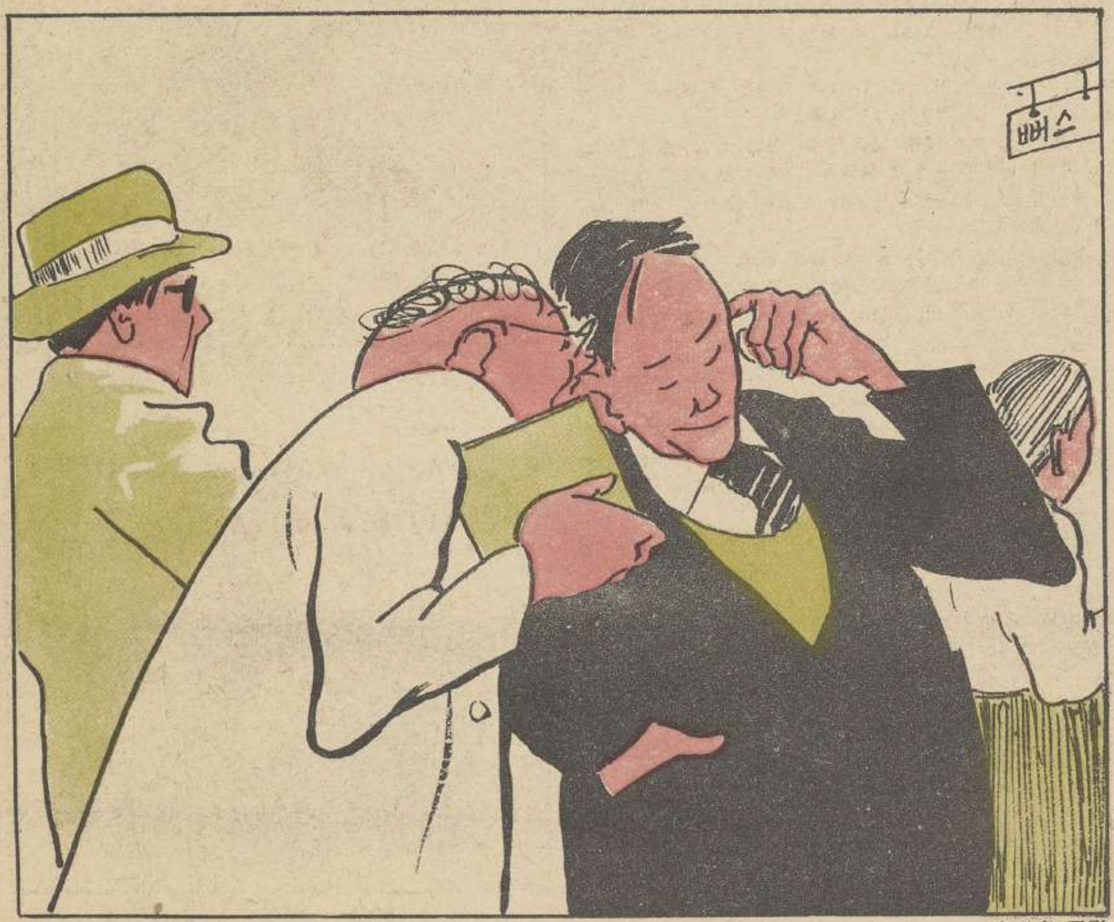
—간식도 사 줬고

— 잠도 잘 잤는데……



— 왜, 병에 걸렸을까? 조화 아니예요

비밀은 입밖에 나가지 말아야한다



홍종호 그림

—— 이건 절대 비밀인데 말이지……

경구 四수

김 영철

낮은 설비 리용률

낮 잠에서 깨어난 사자 한마리
갈기를 흔들며 라사를 집어 든다
《파리 겨뉘 대포를 쏠 셈인가?
요따위는 개구리에게나 맡길게지!》

노력의 랑비

오이는 거꾸로 먹어도
제 맛이라고들 말하건만,
지붕 잇기 전에 유리부터 달다나니
땀 방울만 구슬 구슬 부서지누나!

석탄의 하소연

공장 구내에서 비'바람 맞아
흙벅벅이 되어가는 신세로다——
색동 저고리가 밤'길에 채운다면
뉘던지 벌써 횃대에 걸었으리!

임금 받은 날

대포 한 잔 더 마시려
불룩한 호주머니 어루만질 제,
부유한 생활로, 은행으로 부르는
안해와 조국의 목 소리를 들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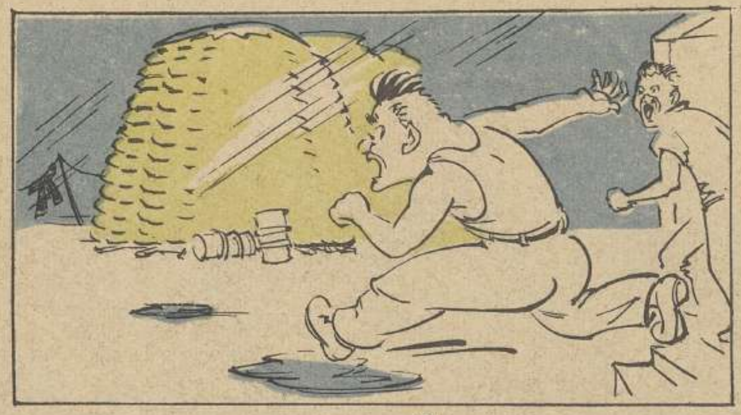
간첩 파괴 분자들이 노리는 틈

박 승히 그림

부화 방탕한 곳

경각성이 해이한 곳

대단한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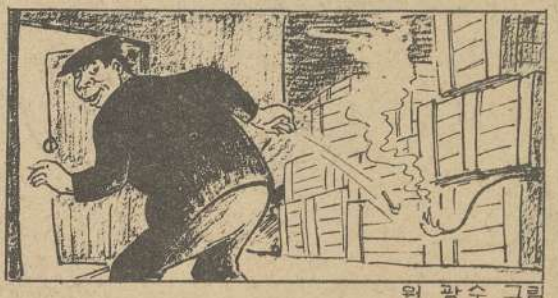


……………………?!

—아이구 하마트면 젖을뻔 했군

조명식그림

간첩들의 죄행



원 광수 그림

편집 위원 장 진광, 유 항림, 김 선락, 박 기성, 정 준기
신 홍순, 백 인균, 송 용남, 리 수근,

발행소 활 살 사 인쇄 1957. 6. 10 ㄱ 40504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발행 1957. 6. 15 값(50)원

막을 수 없는 길